

대학생의 성격유형이 대학도서관 정보이용행태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양학습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Personality Types of College Students on Information Use Behavior and Satisfaction for University Libraries: Focusing on Cultural Learning

이태희 (Tae Hee Lee)**

장우권 (Woo Kwon Chang)***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학습을 위해 성격유형별로 정보이용행태와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대학도서관에서 대학생의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C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MBTI 성격유형, 정보이용행태, 만족도, 대학도서관 서비스 인식조사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9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성격유형에 따른 정보이용행태는 '선호정보원', '정보원 고려요소', '정보수집패턴'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성격유형에 따른 만족도는 '시스템 활용 능력', '자료 선별 능력', '학습활동 유용성 인지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성격유형과 정보이용행태에 따른 만족도는 선호정보원과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다양한 주제 자료가 혼재되어 있고, 학문적인 심도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반비례 관계인 것에 반해, '소셜미디어' 선호도는 '탐색결과 만족도'와 비례해 교양학습에 있어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제공해주어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대학교 대학생들은 교양학습을 위한 정보추구에서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이용행태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information use behavior and satisfaction appear by personality type for liberal arts learning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propose a 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 plan that can help college students study in university librarie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169 university students enrolled in C University. The analysis consisted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BTI personality type, information use behavior, satisfaction, and university library service perception survey. Frequency analysis, cross-analysi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one-way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the SPSS 29 statistical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in 'preferred information sources', 'information source consideration factors', and 'information collection patterns'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tisfaction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in 'system utilization ability', 'data selection ability',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usefulness of learning activities'.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ferred information sources and satisfaction based on personality types and information use behaviors, there appears to be an inverse relationship when the content includes various topics with a lack of academic depth or expertise. However, the preference for 'social media'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atisfaction with search results,' as it provides diverse perspectives and viewpoints in liberal education

키워드: C 대학교 대학생, MBTI 성격유형, 대학도서관, 정보이용행태, 대학도서관서비스

C University student, MBTI personality type, university library, information use behavior, university library service

* 이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지표는 석사학위논문에서 인용하여 수정·보완 함.

**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수료(lte7506@naver.com)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k1961@jn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4년 8월 15일 ■ 최초심사일자: 2024년 8월 28일 ■ 게재확정일자: 2024년 9월 3일

■ 정보관리학회지, 41(3), 205-247, 2024. <http://dx.doi.org/10.3743/KOSIM.2024.41.3.205>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정보기술의 급변에 따른 웹 중심의 정보선호와 함께 새로운 학문의 융복합화·세분화 등으로 정보의 질적, 양적 증가 등의 정보이용 환경과 이용자 측면에서 대학교육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김승한, 2023).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웹을 통해 쉽게 구하게 되고 디지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공유와 교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공간이라는 물리적 조건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접근이 용이해졌다(홍성연, 2023). 또한 정보이용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대학도서관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학도서관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학생의 교양학습에 도움을 주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대학에서는 특정 전공분야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학문의 지식을 융합한 창의적 융합사고능력이 중요시되고 교양학습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학생들이 기본적 지식과 자율적 학구능력을 함양하고,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2) 교양교육을 위한 교양학습이 필요하다.

최근 이용자들에게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서비스는 여러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K대학교 도서관에서는 MBTI를 활용해 독서프로그램을, C대학교에서는 MBTI를 활용한 취업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제4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연구와 수요조사에 기반한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고, 전공·주제별 검색과 원문 이용

등이 가능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3).

이와 같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지 능력, 감정, 성격 등이 개인의 특성에 포함되거나 다른 특성에 비해 개인의 성격유형이 정보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위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격유형에 따른 정보이용행태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정보이용행태와 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유형과 패턴 그리고 성향을 파악한 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김희섭, 2004; Halder et al., 2010; Heinström, 2005; Song & Kwon, 2012).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C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학습을 위한 정보추구행위에서 MBTI를 활용하여 성격유형별로 정보이용행태와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분석하여, 대학생들의 학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안하는 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교양학습과 필요성

교양교육의 연원은 중세 대학 설립 이후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관점은자유교양교육(liberal education)과 일반교양교육(general education)이다(강창동, 2015). 자유교양교육

은 고대 그리스의 교양교육 전통을 따라, 자유로운 인간 이성의 계발을 목적으로 사회적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이나 소통 능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정종원, 유기웅, 2015). 즉 단순 지식이나 기술을 위한 교육이 아닌 품성을 도야하고 자기 목적적 활동을 위한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다(손동현, 2006).

학자마다 교양교육을 자유교양교육에 초점을 두거나 일반교양교육에 초점을 두는 등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22)에 따르면 “교양교육은 초연결·초지능 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의 시대상에 따라 객관적 사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민주주의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여기에서는 일반교양교육과 자유교양교육의 이념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양학습’을 “대학생이 전공과목 이외의 일반교양과목에 대해 다양한 영역의 기초적인 이해와 지식을 확보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한다.

21세기 세계화의 흐름에 다양한 변화 속에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급변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학은 외부에서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김한근, 1993), 내부에서 학생 스스로 지식을 선택·분석·종합·결합할 수 있는 자주적인 지성인을 육성한다(이현민, 2016).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융복합적 지식과 실천의 조화를 통한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양성에 있다(이성흙, 윤옥한, 2013). 각 대학에서는 교

양교육원, 교양기초교육원, 기초융합교육원 등의 부서에서 교양교과목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각 대학에서의 교양수업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고 전문화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최윤희, 2017).

학습활동은 개인이 자신의 지식, 능력,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목적을 가진 체계화된 활동이다(이은주, 2013). 자기계발을 위해 관련 지식과 기술 그리고 능력을 취득하는 모든 행위라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되며(이은주, 이제환, 2011), 수업을 포함하여 지식의 다양한 습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이다.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10)’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습과정에 대해 ‘수업 중 학습경험’과 ‘수업 외 학습경험’으로 구분하였다. 수업 중 학습경험은 수업준비, 수업참여, 평가 및 시험, 과제수행으로 나누고 수업 외 학습경험을 동아리, 사교육, 독서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 학습활동의 범위는 수업과제와 관련된 정보, 수업이해와 관련된 정보는 물론 강의시간에 치러지는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 방법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한다.

2.2 MBTI

2.2.1 Jung의 성격유형과 MBTI

Jung은 심리유형론에서 인간은 같은 사물을 대상으로 서로 다르게 보고, 느끼고 판단하며, 판단한 것을 다르게 행동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개인의 일관된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하였다. 즉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는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내부에는 일

정한 질서가 있다고 보았다(김정택 외, 1995). 또한 그는 4가지 정신기능으로 감각(Sensing)은 가능성 있는 현실적 경험을, 직관(Intuition)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상을, 사고(Thinking)는 합리적인 질서와 계획을 객관적 논리로, 감정(Feeling)은 주관적인 가치의 조화에 따른 합리적인 질서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4가지에 외향성(E, Extraversion)과 내향성(I, Introversion)의 태도기능을 추가하여 선호기능을 분류 후 도출하였다(홍정연, 2019).

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Briggs와 Myers는 보다 쉽고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 성격유형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지표는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보고 문항을 통해 인식하고 판단할 때의 각자 선호하는 경향을 찾는 심리검사이다. 즉 선호경향들이 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한국MBTI연구소, [발행년 불명]).

개인의 성격유형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에는 MBTI 뿐만 아니라, Big Five Personality Trait, DISC Personality Assessment, Enneagram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제공되며, 각각 다른 이론과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기존의 다른 심리검사는 어려운 용어와 검사 및 해석으로 비전공자들이 접근하기에 진입장벽이 높다. 그러나 MBTI는 간단한 검사 방법과 결과에 대한 쉬운 해석으로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다른 대중화 요인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써 MBTI를 활용한다.

2.2.2 MBTI 4가지 선호지표

선호지표란 한 개인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기능의 경향성이다. MBTI는 4가지 분리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양극성을 띤다. 개인은 외향 대 내향, 감각 대 직관, 사고 대 감정, 판단 대 인식의 4가지 반대되는 선호지표 중 한 쪽 선호를 지닌다고 가정하며, 4가지 선호지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강보람, 2019).

1) 외향(Extraversion)과 내향(Introversion)

외향형(E)과 내향형(I)의 지표는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이 외부세계인지, 또는 내부세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외향형 사람은 에너지의 방향이 주로 외부세계의 사람이나 대상을 향한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적 사건에 더 관심이 많으며 밖으로 나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함으로 활력을 얻는다. 이들은 폭넓은 대인관계를 선호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배운다. 그에 반해 내향형 사람은 사람과 깊이 있게 사귀는 것을 선호하며, 조용하며 신중하여 상황을 이해한 후에 행동하는 경향이다. 때때로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생각이나 사색을 통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경향을 보인다(서갑주, 2016).

2) 감각(Sensing)과 직관(Intuition)

감각형과 직관형의 지표는 두 가지 인식방법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감각형은 주로 미각, 후각, 촉각 등 오감 인식에 초점을 두며, 현재 관찰 가능한 사실과 사건에 주목한다. 반면 직관형은 주로 인식하는 패턴이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며, 의식의 영역을 넘어서 어떤 사실이나 사건의 이면에 감추

어진 의미나 관련성, 가능성 등에 주목한다(강보람, 2019).

3) 사고(Thinking)와 감정(Feeling)

사고형과 감정형의 지표는 판단을 할 때 양극의 두 경향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가를 결정된다. 사고형은 인정에 끌리지 않고 주로 사고를 통한 논리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한편 감정형은 주로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감정에 따라 결정하려는 경향이다(손현정, 2015).

4) 판단(Judgement)과 인식(Perception)

판단형과 인식형의 지표는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생활양식을 나타낸다. 판단이란 개념은 어떤 것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 활동을 계획한다. 어떤 일이든 조직적·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정한 시간에 끝을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을 의미하여 외부로 표현되는 행동도 단호하고 빈틈없고 생산적이며 목적의식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권용근, 2011). 반면 인식형은 감각과 직관을 선호하는 유형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관찰하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결정을 최대한 유보한다. 또한 개방적이고 유연성 있는 생활방식을 선호해, 호기심이 많고 융통성 있으며 흐름에 맞추어 순응하려고 한다. 계획적이고 통제적인 것을 싫어하며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상황에 놓여진 모험을 즐기며 자유를 좋아하는 특징을 나타낸다(표 1 참조)(서갑주, 2016).

〈표 1〉 MBTI 양극지표의 특성

척도	선호경향
외향(E) - 내향(I)	에너지의 방향은 어느 쪽인가
감각(N) - 직관(S)	무엇을 인식하는가
사고(T) - 감정(F)	어떻게 결정하는가
판단(J) - 인식(P)	채택하는 생활양식은 무엇인가

2.2.3 MBTI 성격유형

4가지 지표(E-I, N-S, T-F, J-P)마다 서로 양극을 이루는 선호경향이 있고, 이러한 선호경향은 각각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기를 좋아하는가를 가리킨다. MBTI 검사를 통해 이와 같은 독립적인 척도 4가지의 조합에 따라 사람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은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지표의 선호경향은 나머지 3가지 지표의 선호경향과 무관하게 적용한다(표 2 참조)(김정택, 2015).

〈표 2〉 MBTI 16가지 성격유형 지표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ESTJ	ESFJ	ENFJ	ENTJ

한국MBTI심리연구소([발행년불명]에서는 16가지 유형의 MBTI 성격유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표 3 참조).

2.2.4 기질

Myers와 Briggs는 20여 년에 걸친 인간관계 관찰한 결과, 사람들이 인식기능과 판단 기능을 사용함으로 각기 다른 재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적응적 대처 기술 표현도 성격유형에

〈표 3〉 MBTI 성격유형과 특징

유형	특징
ISTJ	조용하고 신중하며 철저함과 확실성으로 항상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 자신이 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논리적으로 결정한다.
ISFJ	다정한 성격으로 조용하고 성실한 것이 특징이다. 자신이 맡은 바에 헌신적이고 이를 꾸준히 실현해 나간다. 또한 타인에게 관심이 많고, 그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기억한다.
INFJ	사람들의 동기를 이해하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확고한 가치를 양심적으로 수행하여,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동기화시킨다.
INTJ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풍부한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또한 사건의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여 일을 조직화하여 수행한다.
ISTP	상황에 대해 관조적이며 유연하다. 일단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현실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ISFP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논쟁과 갈등을 싫어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INFP	이상주의자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가치나 사람에게 충성한다. 호기심이 많고 아이디어를 수행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한다.
INTP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며 자신의 관심 영역에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보다는 개인의 아이디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ESTP	상황에 유연하여 즉각적인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 현실적 접근을 선호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이론과 개념적 설명은 지루해한다.
ESFP	사교적이고 다정하며, 긍정적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선호하여 현실적인 접근으로 일을 재미있게 하고자 한다. 새로운 환경에 가장 빨리 적응한다.
ENFP	열정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타인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며, 자신만의 즉흥적이고 유창한 언변을 발휘하기도 한다.
ENTP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여 거리낌 없이 표현한다. 새롭고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흥미를 느끼고,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실증을 느낀다.
ESTJ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다. 프로젝트를 구조화하고 사람들을 조직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자신의 계획을 추진해 나갈 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ESFJ	마음이 따뜻하고 협조적으로 주변 상황이 조화롭고 화합되기를 원한다. 혼자보다 타인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ENFJ	감정이입을 잘하며 표현이 활발하고 책임감이 있다. 타인에게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며 리더십을 발휘한다.
ENTJ	솔직하며 결단력 있고 타인을 잘 이끈다. 비논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절차와 정책을 빨리 간파하여 수정한다. 장기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의 비전과 아이디어를 뚜렷하게 표현하고 관철시킨다.

따라 서로 다른 차이를 보였다(황광현, 2004).

MBTI 성격유형지표는 기본적인 기능, 기질, 태도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 생활의 대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교육과 상담, 진로지도 및 직업 선택,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발히 활용

되고 있다(김재은, 2000). 에너지방향, 인식기능, 판단기능, 이행양식 등 2가지 지표를 조합한 심리기능유형과 기질유형, 태도지표, 사분할 유형으로 집단별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은 〈표 4〉와 같다(곽우정 외, 2019).

〈표 4〉 MBTI 성격유형 지표와 유형

성격유형 지표	특징
심리기능 : ST, SF, NT, NF	개인의 가치적인 여러 행동 속에 내재하는 일관된 패턴을 나타내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태도지표 : IJ, IP, EP, EJ	태도지표는 MBTI 성격유형 도표의 가로축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MBTI 성격유형의 다면적 유형해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준이다.
기질 : SP, SJ, NT, NF	기질은 개인의 가치적 행동 패턴에 내재되어 있는 일관성을 의미하며 개인의 반응성향이 지닌, 자연적으로 제약받는 특징들의 총화이다(강민정, 2014).

히포크라테스가 4가지 체액에 의한 기질적 특성을 설명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사람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성과 중 하나가 Keirse의 기질 이론이다. 이 이론을 MBTI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MBTI 성격유형의 분류 중 기질은 사람마다 나타나는 행동의 선천적 일관적 특성의 정도이다(김종철, 2006). 또한 개인의 여러 행동 속에 내재된 일관성 있는 패턴으로(Jung, 1979) 관찰 가능한 외형적 행동의 패턴이나 행동특징에 의해 4가지 기질로 분류할 수 있다(김종철, 2006). 즉 MBTI의 16가지 유형 중에서 주기능과 무기능의 조합으로, 인식할 때 선호하는 감각형(S)과 직관형(N)이 각자의 기질을 결정하며 4가지 기질 유형의 특성은 〈표 5〉와 같다.

2.3 정보이용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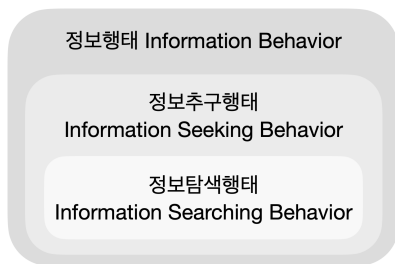
교양학습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적인 요구와 행동을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이용자 연구'라 칭하며 '정보요구와 이용', '정보추구행태' 또는 '정보이용행태' 등으로 부른다(이관주, 김수진, 2015). 정보이용행태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 용어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성면섭, 2020).

정보요구(Information need)는 '개인의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각자가 소유한 현재의 지식상태로서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개인 지식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필요사

〈표 5〉 MBTI 기질 유형과 특징

유형	특징
SJ (감각적 판단형)	책임감과 성실성이 뛰어나며 위계질서와 전통을 중시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시하여, 대학 내에 동아리나 학술조직과 같은 그룹에 속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현실적인 접근으로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SP (감각적 인식형)	기쁨과 자유를 추구하며 충동적인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응한다. 문제를 해결할 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여 이론적인 사고보다 경험적인 학습을 선호한다.
NF (직관적 감정형)	이상가로서 진실, 공감, 공유관계를 원하고 자신의 의미와 정체감, 자아실현을 추구하며 높은 목표를 세워 학업성취가 높으며 창의적으로 의사소통을 즐긴다.
NT (직관적 사고형)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며 자기 비관적으로 자질, 재능, 재주, 지식의 축적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학습과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항'이다(문헌정보학용어사전편찬위원회, 2010). 이와 같이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이해하는 것은 이용자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제반 환경과 그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용자 계층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정동열, 김성진, 2010). 또한 정보채널(Information Channel)의 선택, 정보요구의 질과 양, 그리고 정보의 최신성·다양성이 정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명제나 또는 이용자가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는 동기를 유발하는 개인적인 요인들의 역할에 관한 명제를 제공할 정보이용행태 이론(Information Use Behavior Theory)이 필요하다(Paisley, 1968). 또한 정보행태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의 연구모델을 분석하여, 정보행태 통합모형을 제안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정보행태 통합모형
* Wilson (1999). p.263 발췌하여 재구성.

정보행태를 정보추구행태와 정보행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각각의 개념의 상·하위 개념을 나타냈다. 정보탐색행태는 정보이용자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며, 정보추구행태는 정보자원을 발견한 후 그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채택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진다(Wilson, 1999). 즉 정보추구행태는 정보요구

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목적성이 나타나는 행위이며, 정보가 결여된 상태를 인지함으로써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행동들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성면섭, 2020). 또한 정보추구행태는 이용자가 자신의 지식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여하는 과정으로써 문제 지향적이라 하였으며, 정보추구행태가 학습 및 문제해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Marchionini, 1995).

종합적으로 정보이용행태는 이용자가 정보요구를 인지한 후 자신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이며(Bates, 2010), 정보요구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전 과정으로 정보요구의 개념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박해인, 2023).

정보행태 연구에서 배경과 상황은 중요한 요소이다. 정보요구가 무(無)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목적 그리고 영향력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자신에게서 발생한 요구와 질의의 유형을 부분적으로 결정, 제한, 유지하는 하나의 상황에 처한다. 또한 그들은 그들만의 기억, 성향 혹은 동기 등 영향력을 미치는 내적인 환경을 지니며, 그들의 환경은 연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임진희, 2010).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정보이용행태는 대학생이 교양학습과 관련하여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에서의 정보탐색과 도서관 이용 등과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정보탐색을 의미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4 만족도

‘만족’이라는 개념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Oliver는 만족(satisfaction)은 개인이 경험하기 이전의 기대와 경험 후의 일치 여부에 따른 평가라고 하였고(Richard, 1980), Elliott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정의하였다(Elliot & Shin, 2010).

만족도는 Katz가 제시한 ‘이용과 충족이론’에서 시작되었다(Elihu, 1959).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각 연구에서는 만족도를 다르게 정의하고, 대부분의 연구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후 만족한 수준의 정도를 전반적으로 묻고 있었다(강문식, 정영정, 2008; 조가흠, 2017; Seddon, 1997). 연구자마다 설정한 문항에는 다소 차이는 있었다. Seddon(1997)는 정보시스템 이용 만족, 이용에 대한 경험, 검색 결과의 유용성 등을 측정하고, 강문식과 정영정(2008)은 전반적인 만족도와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었다. 또한 조가흠(2017)은 전반적인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유무 등으로 만족도 문항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만족도 문항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이 교양학습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의 만족도부터 이용 후의 결과 및 전반적인 서비스의 만족도이다.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도서관의 맞춤형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5 선행연구

국내 대학생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및 성격유형과 정보이용행태의 상관관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5.1 대학생의 정보이용행태

배경재(2010)는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서비스 이용자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여 각각 정보요구와 이용행태가 어떤지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로 동일주제 배경을 갖고 있더라도 학부생은 국내 포털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고, 대학원생은 학술정보 포털사이트, 학회사이트 등 특정 정보원에 이용이 집중되어 있음이 나타나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차이가 있었다.

이은주와 이제환(2011)은 대학도서관 경험이 있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학습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행태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수업숙지와 과제수행에 가장 큰 노력을 투자하였고, 선호하는 정보원으로는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가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정보요구의 강도에서는 과제수행과 더불어 교양습득에 요구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양학습에 관한 정보이용행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성진(2020)은 대학생이 대학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전자자료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A대학교 도서관의 전자자료 이용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학계열의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 자료에 대한 이용이 약 72%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공학계열 남학생의 이용이 동영상 강의

자료에 집중되었고, 인문사회계열 여학생들은 전자책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 외(2021)는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대학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그들의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별 정보 활용역량에 차이를 보여 도서관은 개인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하였다.

김아현, 이승민(2023)은 대학도서관의 주제 가이드 구축과 개선을 위해 대학생들의 학술정보 이용행태와 주제가이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학술정보 이용행태를 고찰하기 위해 학술정보 이용 목적, 학술정보 이용 유형, 학술정보에 대한 요구, 만족도, 선호하는 학술정보의 유형, 선호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수의 대학생들은 학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학술정보를 이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보탐색방법으로 네이버와 구글 등과 같은 전자정보자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2 성격유형과 정보이용행태의 관계

이제환(2009)은 직관형과 의존형으로 구분되는 성격적 특성에 따라 정보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감성보다는 의존성이 정보행태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적 성향이 약할수록 전문정보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는 반면, 감성적 성향이 강할수록 경험정보에 대한 선호 경향이 뚜렷해진다.

김현희와 장유리(2014)는 한국형 에니어그램(KEPTI) 도구를 사용하여 200명의 인문사

회과학 대학생으로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힘의 중심에 따라 정보이용 동기, 학술 정보수집과 탐색 행태 및 SNS 이용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정보탐색의 문제점은 힘의 중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의한 값을 얻지 못한 '만족도' 문항에서는 9가지 성격유형들로 분석하여 유의한 차이를 도출하였다.

김희섭(2004)은 MBTI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지표(외향형-내향형, 감각형-직관형, 사고형-감정형, 판단형-인식형)를 활용하여 Web OPAC 탐색행태 및 인터페이스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외향형 대학생들은 내향형보다 'NOT' 연산자와 언어제한 검색을 더 자주 사용하고 감각형은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사고형은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판단형은 시스템 UI가 제공하는 이용자 지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곽우정 외(2019)는 K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도서관의 정보자원과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자료(정보원) 선호도 분석에서 성격유형별로 주제 선호도와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선호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용자 서비스 선호도 분석에서는 성격유형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격유형에 관계없이 개인맞춤형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보여 이용자에게 맞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장현정과 김명애(2014)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MBTI 성격유형별 기질로써 학습유형과 학습전략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4가

지 성격유형별 기질은 표층형, 심층형 및 성취형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SP(감각적 인식)형은 모두 학습전략 사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련과 배천웅(2007)은 성격유형별 기질에 따른 학습전략 선호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 NT형은 이해전략, 회상전략, 확장전략을 SJ형은 회상전략, 소화전략, 재미미전략, 주의집중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형은 모두 확장전략 사용도가 낮음을 나타냈다.

Heinström(2005)은 외향성(extraversion), 신경증(neuroticism),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성실성(conscientiousness), 순응성(agreeableness)으로 도출되는 성격 5요인 도구(NEO-FIVE Factor Inventory)를 활용하여 305명의 대학원생의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해 정보추구행태를 유형화하였다.

Pamela와 Loren(2003)은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2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식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이메일 관리에 대해 인식형 성격유형이 이메일을 더욱 유연하게 다루는 경향을 보이며, 감각형 성격유형은 추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더욱 신뢰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등 MBTI 유형이 정보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성격유형 기질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유형이 다르다. 성격유형은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격유형 기질과 정보이용행태의 관계를 분석한 소수의 연구(김종련, 배천웅, 2007)는 있으나 이들은 연구대상이 일부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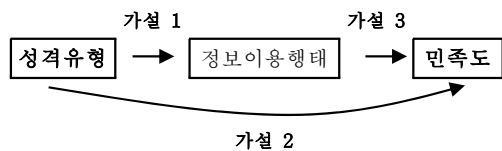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인구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MBTI 성격유형 기질과 교양학습을 위한 정보이용행태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

3.1.1 연구모형

〈그림 2〉는 대학생의 성격유형이 교양학습을 위한 정보이용행태와 만족도 간 관계분석을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이다.



〈그림 2〉 연구모형

성격유형을 독립변인으로, 교양학습을 위한 정보이용행태와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성격유형은 기질적 성격유형인 SJ, SP, NT, NF로 나누었다. 정보이용행태는 정보탐색목적, 선호정보원, 정보원 고려요소, 정보수집패턴으로 설정하였다. 만족도는 크게 문제인지도, 정보이용만족도로 구분하였다.

3.1.2 연구문제 및 가설

〈표 6〉은 연구문제와 가설이다.

〈표 6〉 연구문제와 가설

연구문제와 가설	내용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성격유형이 정보이용행태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가?
가설 1	성격유형이 교양학습을 위한 정보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탐색 목적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1-2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정보원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1-3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원 고려요소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1-4	성격유형에 따라 수집패턴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성격유형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1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이용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성격유형과 선호하는 정보원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1	성격유형과 선호하는 정보원에 따라 정보탐색 과정의 문제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성격유형과 선호하는 정보원에 따라 정보이용만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설문구성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참고하여 각 변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전공, 학년)과 MBTI 성격유형, 교양 학습을 위한 정보이용행태 4문항(정보탐색목적, 선호정보원, 정보원 고려요소, 정보수집패턴), 만족도 2문항,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4

문항, 전체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의 성격 유형은 단답형 항목으로 응답자의 MBTI 성격유형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사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용어정의와 이해 병행). 대다수 대학생들이 한국 MBTI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MBTI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고 별도의 MBTI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설문 문항은 〈표 7〉과 같이

〈표 7〉 설문문항 구성

구분	설문내용	문항	선행연구
I.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4	
	학년		
	계열 소속		
	MBTI 성격유형		
II. 교양 학습을 위한 정보이용행태	정보탐색목적	1	이범주(2003)
	선호정보원	10	김현희, 장유리(2014)
	정보원 선호이유	1	이은주, 이제환(2011)
	정보수집패턴	1	김현희, 장유리(2014)
III. 만족도 및 문제 인지도	정보탐색 문제 인지도	5	김유중(2017)
	정보이용만족도	4	정영미(2012)
IV. 대학도서관 서비스 인식조사	도서관 서비스 사용여부 이용서비스	4	김진영(2012)
전체		30	

도출되었다.

대학생의 정보이용행태는 정보탐색의 목적, 선호정보원, 정보원 선택시 고려요소, 정보수집 패턴으로 구성하였으며, 선호정보원의 예는 명목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개방형 질문을 넣어 자유로운 의견을 기술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만족도는 연구대상자의 이용에 따른 결과물로 이용자가 지각하는 만족의 정도로 정의한다.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대상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보탐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즉 만족도 및 문제 인지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식조사는 C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의 교양학습 지원 서비스 인지여부를 측정하였다.

위의 정보이용행태, 만족도와 인식조사를 토대로 C대학교 도서관의 서비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이용자들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3.1 연구대상 절차

연구대상은 G광역시의 C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2024년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구글 폼(Google Forms) 설문지와 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전 응답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연구의 내용과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173부 중 지나치게 극단적이거나 일률적인 응답을 보

인 설문지 4부를 제외하였다. 전체 169부의 응답을 유효자료로 채택하였다.

3.3.2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29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격유형, 교양학습을 위한 정보이용행태,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항목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시행하여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확인하였다. 셋째, 성격유형에 따라 교양학습을 위한 정보이용행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교차분석,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성격유형에 따라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다섯째, 성격유형과 정보이용행태와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대학도서관에서의 교양학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성격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응답자 성격유형은 <표 9>와 같다. 응답자의

〈표 8〉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	66	39.1
	여	103	60.9
계		169	100.0
전공 (계열)	인문	28	16.6
	사회과학	27	16.0
	자연과학	23	13.6
	공학	42	24.9
	교육	19	11.2
	의약	9	5.3
	예체능	21	12.4
계		169	100.0
학년	1학년	16	9.5
	2학년	20	11.8
	3학년	43	25.4
	4학년	90	53.3
	계	169	100.0

〈표 9〉 응답자의 성격유형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격유형	ENFJ	10	5.9
	ENFP	10	5.9
	ENTJ	7	4.1
	ENTP	11	6.5
	ESFJ	7	4.1
	ESFP	10	5.9
	ESTJ	10	5.9
	ESTP	2	1.2
	INFJ	11	6.5
	INFP	22	13.0
	INTJ	9	5.3
	INTP	12	7.1
	ISFJ	12	7.1
	ISFP	15	8.9
	ISTJ	5	3.0
ISTP	16	9.5	
계		169	100.0
기질적 성격유형	NF	53	31.4
	NT	39	23.1
	SJ	34	20.1
	SP	43	25.4
계		169	100.0

16가지 성격유형은 INFP가 22명(1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ESTP는 2명(1.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기질적 성격유형은 NF가 53명(31.4), SP가 43명(25.4), NT가 39명(23.1), SJ가 34명(20.1) 순으로 나타났다.

4.2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에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정보이용행태(0.632, 항목수 13)와 만족도(0.757, 항목수 9)에 대해서는 모두 0.6 이상,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문항 제거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4.3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이용행태 차이

성격유형이 교양학습을 위한 정보이용행태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격유형과 정보탐색목적, 선호하는 정보원, 정보원 고려 요소, 정보수집패턴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가설 1-1]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탐색 목적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성격유형에 따라 교양학습을 위한 정보탐색의 목적은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성격유형에 상관없이 '과제해결을 위해'가 89명(52.7)으로 과반수 이상이 과제해결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준비를 위해' 48명(28.4), '자율적인 학습연구를 위해' 28명(16.6), '수업의 예습·복습을 위해' 4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이 교양학습을 위한 정보탐색 목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1> 참조).

<표 10> 성격유형별 정보탐색목적

단위: 명(%)

구분	정보탐색목적				전체	
	과제 해결을 위해	시험 준비를 위해	수업의 예습·복습을 위해	자율적 학습·구를 위해		
성격유형	nf	28(52.8)	13(24.5)	0(0)	12(22.6)	53
	nt	20(51.3)	10(25.6)	1(2.6)	8(20.5)	39
	sp	25(58.1)	13(30.2)	2(4.7)	3(7)	43
	sj	16(47.1)	12(35.3)	1(2.9)	5(14.7)	34
전체	89(52.7)	48(28.4)	4(2.4)	28(16.6)	169	

<표 11> 성격유형별 정보탐색목적의 적합도와 우도비 검정

효과	모형적합 기준	우도비 검정		
	축소모형의 -2 로그 우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36.099	.000	0	.
성격유형	45.368	9.269	9	.413

* $p < .05$, ** $p < .01$, *** $p < .001$

그 결과, 가설 1-1은 최종의 '-2로그 우도'값이 절편보다 크므로 모형이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413임에 성격유형은 정보탐색목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대학생은 성격유형에 관계없이 교양학습 시 과제해결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 [가설 1-2]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정보원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대학생의 교양학습을 위한 정보이용 시 사용하는 정보원을 선호 순서대로 순위를 매겼다 (<표 12> 참조). 분석 결과, '종합검색포털'(4.35)

을 제일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온라인백과사전'(3.45), '지인'(3.41), '온라인 도서관 홈페이지'(3.23), '관련 커뮤니티'(3.22), '대화형 인공지능'(3.03), '소셜미디어'(2.78), '직접 도서관 방문'(2.54), '보고서구매사이트'(2.49), '오프라인 서점'(2.30)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정보원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일원배치 분산분석) 분석결과, '온라인백과사전'(P= 0.006) 항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SJ형(4.03)이 '온라인백과사전' 항목을 가장 선호하였고, NF형(3.36), NT형(3.31) SP형(3.23)순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 간 온라인백과사전 선호도 차이 결정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2> 선호정보원 단순 회귀분석

정보원	성격유형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종합검색포털 (네이버, 구글, 다음 등)	NF	43	4.36	0.591	0.496
	NT	39	4.26	0.850	
	SP	53	4.30	0.803	
	SJ	34	4.50	0.564	
	합계(순위) (1)		4.35	0.709	
온라인 도서관 홈페이지	NF	43	3.38	1.042	0.422
	NT	39	3.05	1.213	
	SP	53	3.12	1.117	
	SJ	34	3.35	1.070	
	합계(순위) (4)		3.23	1.107	
직접 도서관 방문	NF	43	2.64	1.178	0.556
	NT	39	2.56	1.188	
	SP	53	2.33	0.969	
	SJ	34	2.62	1.256	
	합계(순위)(8)		2.54	1.144	
관련 커뮤니티 (카페, 학교 커뮤니티 앱 등)	NF	43	3.13	1.057	0.191
	NT	39	3.10	1.188	
	SP	53	3.16	1.067	
	SJ	34	3.59	1.048	
	합계(순위)(5)		3.22	1.095	

정보원	성격유형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소셜미디어 (Instagram, Facebook, Youtube 등)	NF	43	2.70	1.234	0.294
	NT	39	2.51	1.412	
	SP	53	2.86	1.320	
	SJ	34	3.09	1.401	
	합계(순위)(7)		2.78	1.335	
온라인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두산동아대백과 등)	NF	43	3.36	0.963	0.006**
	NT	39	3.31	1.360	
	SP	53	3.23	1.020	
	SJ	34	4.03	0.870	
	합계(순위)(2)		3.45	1.096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	NF	43	2.79	1.183	0.377
	NT	39	3.23	1.385	
	SP	53	3.12	1.258	
	SJ	34	3.06	1.205	
	합계(순위)(6)		3.03	1.256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NF	43	2.23	1.103	0.937
	NT	39	2.31	1.151	
	SP	53	2.30	1.036	
	SJ	34	2.38	1.181	
	합계(순위)(10)		2.30	1.105	
보고서구매사이트 (해피캠퍼스, 레포트월드 등)	NF	43	2.25	1.239	0.317
	NT	39	2.62	1.290	
	SP	53	2.49	1.222	
	SJ	34	2.71	1.142	
	합계(순위)(9)		2.49	1.230	
지인 (친구, 선후배, 교수 등)	NF	43	3.32	1.070	0.196
	NT	39	3.21	1.151	
	SP	53	3.65	0.897	
	SJ	34	3.50	0.862	
	합계(순위)(3)		3.41	1.015	

* $p < .05$, ** $p < .01$, *** $p < .001$

〈표 13〉 성격유형 간 온라인백과사전 사후검정

구분		온라인백과사전 선호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성격유형	NF ^a	43	3.36	0.963	3.45	0.006**	a,b,c<d
	NT ^b	39	3.31	1.360			
	SP ^c	53	3.23	1.020			
	SJ ^d	34	4.03	0.870			

* $p < .05$, ** $p < .01$, *** $p < .001$

사후검정(sheffe test) 결과, SJ형과 NF형, NT형, SP형 간의 온라인백과사전 선호도에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SJ형은 평균 4.03점으로 다른 성격유형보다 온라인백과사전 선호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온라인 백과사전은 대개 신뢰할만한 출처를 가지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얻는 것을 선호하고, 질서와 체계를 중요시하며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하는 SJ형의 성격특성에 따라 온라인백과사전을 타 성격유형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NF형은 온라인백과사전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이고 상상력이나 연상에 관련한 호기심이 높은 NF형에게 단계적이고 사실만을 열거하는 정보원인 온라인백과사전은 비교적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성격유형에 따라 온라인백과사전의 선호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 1-2]는 부분채택되었다.

• [가설 1-3]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원 고려요소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성격유형이 교양학습을 위한 정보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134명(79.3%)이 '접근의 수월성'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성격유형별 고려요소의 빈도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성격유형별 정보원 고려요소 분석에서(<표 15> 참조), 최종 '-2로그 우도'값이 절편보다 작으므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유형이 정보원 고려요소에 유의수준 0.0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표 14> 성격유형별 정보원 고려요소 빈도분석

단위: 명, %

구분	고려요소							전체
	①	②	③	비용문제	심적부담	기타		
성격유형	NF	25(47.2)	16(30.2)	1(1.9)	1(1.9)	3(5.7)	7(13.2)	53
	NT	11(28.2)	15(38.5)	9(23.1)	1(2.6)	1(2.6)	2(5.1)	39
	SP	21(48.8)	19(44.2)	1(2.3)	0(0)	0(0)	2(4.7)	43
	SJ	15(44.1)	12(35.3)	5(14.7)	0(0)	0(0)	2(5.9)	34
전체	72	62	17	2	4	12	169	

① 접근의 수월성, ②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 ③ 정보입수에 걸리는 시간

<표 15> 성격유형별 정보원 고려요소 적합도와 우도비 검정

효과	모형 적합 기준	우도비 검정			R ²		
	축소모형의 -2 로그 우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Cox 및 Snell	Nagelkerke	McFadden
절편	46.953159	.172	.067
성격유형	76.212	29.259	15	.015*			

*p<.05, **p<.01, ***p<.001

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선형 회귀분석의 R²값이 의미하는 설명력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R²값의 특성을 유사하게 재현하는 여러 측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형 회귀분석의 값이 의미하는 설명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유사 R-제곱으로 표현하며, 회귀식의 설명력이 6.7%에서 17.2%로 확인되었다.

성격유형별 유의미한 변수 값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종속변수인 정보원 고려요소를 '1=접근의 수월성, 2=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 3=정보입수에 걸리는 시간, 4= 비용문제, 5= 심적부담, 6=기타'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6=기타'를 참조범주로 정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표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정보입수에 걸리는 시간'에서는 'NF형'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NF형의 특성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NF형은 일반적으로 심층적인 이해와 감정적, 사회적, 가치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정보 처리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보입수에 걸리는 시간'이라는 요소에서 NF형이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입수에 걸리는 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어 [가설 1-3]은 부분 채택되었다.

• [가설 1-4]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수집 패턴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성격유형에 따른 정보수집패턴은 전체적으로 '정보가 필요할 때만 검색하고 지인들과 공유하는 편'(49.7%), '정보가 필요할 때 수집하고 혼자 간직하는 편이다'(32.4%),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지인에게 알리는 편이다'(23.5%),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혼자 간직하는 편이다'(7.7%), '남들보다 정보를 늦게 입수하는 편이다'(3%)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별 정보수집패턴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보수집패턴간의 관계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있고, 성격유형별 정보수집패턴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함으로 결과는 <표 17>과 같다.

분석결과, $\chi^2 = 32.509$, $p = 0.001$ 로 나타났다. 유의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수집패턴 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표 16> 정보원 고려요소 모수 추정값

고려요소	B	표준화 오류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①	절편	.916	.837	1.199	1	.273			
	NF	-2.862	1.358	4.445	1	.035*	.057	.004	.817
	NT	.588	1.145	.264	1	.608	1.800	.191	16.817980
	SP	-1.609	1.483	1.177	1	.278	.200	.011	3.661
	SJ	0	.	.	0

* $p < .05$, ** $p < .01$, *** $p < .001$

① 정보입수에 걸리는 시간

〈표 17〉 성격유형별 정보수집패턴 교차분석

구분		정보수집패턴					전체	x ² / p
		①	②	③	④	⑤		
성격 유형	NF	9(17.0)	3(5.7)	29(54.7)	9(17)	3(5.7)	53	32,509 / .001**
	NT	6(15.4)	4(10.3)	20(51.3)	8(20.5)	1(2.6)	39	
	SP	4(9.3)	5(11.6)	21(48.8)	12(27.9)	1(2.3)	43	
	SJ	19(55.9)	1(2.9)	10(29.4)	4(11.8)	0(0)	34	
전체	38(22.5)	13(7.7)	80(47.3)	33(19.5)	5(3.0)	169		

*p<.05, **p<.01, ***p<.001

- ①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지인에게 알리는 편이다.
- ②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혼자 간직하는 편이다.
- ③ 정보를 필요할 때만 수집하고 지인들과 공유하는 편이다.
- ④ 정보를 필요할 때만 수집하고 혼자 간직하는 편이다.
- ⑤ 남들보다 정보를 늦게 입수하는 편이다.

SJ형은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지인에게 알리는 편이다’가 5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SJ형이 즉흥적이지 않고 정보수집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성격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지인에게 알리는 편이다’가 85.3%로 대다수의 SJ형의 대학생이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J형은 소속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미리 수집한 정보를 혼자 간직하기보다는, 자신이 소속된 집단인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수집패턴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가설 1-4]는 채택되었다.

4.4 성격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

성격유형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이용만족도(탐색 시 느끼는 문제점과 그 과정에서의 만족도)와 성격유형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활용).

• [가설 2-1]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 인지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격유형에 따른 문제점 인지 정도 분석 결과(〈표 18〉 참조), 5가지 종속변수 중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F=5.688, p=0.001)’와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찾고 선별하는 것이 어렵다(F=3.534, p=0.016)’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었다.

〈표 19〉에서 2개의 유의한 값 중 ‘시스템 활용능력’은 F=5.688, p=0.001(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정(scheffe test) 결과, SP형과 다른 유형간의 시스템 활용능력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SP형은 시스템 활용능력에 어려움을 3.47점으로 나타냈고 다른 성격유형보다 시스템 활용능력에 어려움을 보였다.

SP형은 주로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복잡한 기술적인 지식이나 시스템을 익히는 것보다

〈표 18〉 성격유형에 따른 문제점 인지 정도 ANOVA ①

종속변수	성격유형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①	NF	53	2.94	0.908	1.979	0.119
	NT	39	2.72	0.944		
	SP	43	2.53	0.767		
	SJ	34	2.65	0.734		
②	NF	53	3.42	1.216	0.682	0.564
	NT	39	3.33	1.132		
	SP	43	3.65	0.897		
	SJ	34	3.50	0.929		
③	NF	53	2.66	0.979	5.688	0.001**
	NT	39	2.82	0.970		
	SP	43	3.47	1.054		
	SJ	34	2.85	0.958		
④	NF	53	2.85	1.008	1.348	0.261
	NT	39	2.92	1.222		
	SP	43	3.02	0.963		
	SJ	34	3.29	0.970		
⑤	NF	53	2.96	0.980	3.534	0.016*
	NT	39	2.56	1.071		
	SP	43	3.23	1.065		
	SJ	34	3.21	1.008		

* $p < .05$, ** $p < .01$, *** $p < .001$

- ① 소속 도서관 소장자원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 ② 유료정보이용에 부담을 느낀다
- ③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 ④ 필요한 정보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
- ⑤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탐색하고 선별하는 것이 어렵다

〈표 19〉 성격유형 간 시스템 활용능력 차이검정

구분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성격 유형	NF ^a	53	2.66	0.979	5.688	0.001**	a,b,d<c
	NT ^b	39	2.82	0.970			
	SP ^c	43	3.47	1.054			
	SJ ^d	34	2.85	0.958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즉흥적이고 탐험적인 성향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술적

학습이나 시스템을 다루는 것보다 당면한 문제에 대해 빠르게 해결을 중요시한다.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 대해 관심이 부족

할 수 있다. 따라서 SP형은 실용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으로 다른 성격유형보다 정보시스템을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표 20〉에서 ‘자료선별능력’은 $F=3.534, p=0.016(p<0.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NT형과 다른 유형 간의 자료선별능력의 평균에 차이가 나타났다. NT형은 자료선별능력 어려움 점수가 평균 2.56으로 다른 성격유형보다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인 차이는 NT형이 주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교양학습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분석력을 발휘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NT유형의 대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찾아낼 수 있으며,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 교양학습을 위한 자료를 탐색하고 선별하는 것에 다른 성격유형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격유형에 따라 시스템 활용 능력과 자료선별능력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가설 2-1]은 부분채택 되었다.

- [가설 2-2] 성격유형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격유형에 따른 만족도 분석 결과(〈표 21〉 참조), 4가지 종속변수 중 ‘탐색을 위해 시간이 충분하였는가?’($F=4.921, p=0.003$), ‘탐색결과는 학습활동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F=3.086, p=0.029$)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었다.

성격유형에 따른 탐색시간 적정성 사후검정 결과(〈표 22〉 참조)는 2개의 유의한 값 중 ‘탐색시간의 적정성’이 $F=4.921, p=0.003(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NT형과 다른 유형 간의 탐색시간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NT형은 탐색시간 만족도에 3.44점으로 다른 성격유형보다 탐색시간이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NT형의 완벽주의적 성향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NT형은 필요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분석하기를 선호한다. 그렇기에 주제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려 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하려는 점에서 정보탐색을 위한 시간이 다른 성격유형에 비해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활동 유용성 사후검정 결과(〈표 23〉 참조), ‘학습활동 유용성’은 $F=3.086, p=0.029(p<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20〉 성격유형간의 자료선별능력 차이검정

구분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탐색하고 선별하는 것이 어렵다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성격 유형	NF ^a	53	2.96	0.980	3.534	0.016*	b<a,c,d
	NT ^b	39	2.56	1.071			
	SP ^c	43	3.23	1.065			
	SJ ^d	34	3.21	1.008			

* $p<0.05$, ** $p<0.01$, *** $p<0.001$

〈표 21〉 성격유형에 따른 만족도 ANOVA

종속변수	성격유형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①	NT	53	3.62	0.713	4.921	0.003**
	NT	39	3.44	0.940		
	SP	43	3.70	0.599		
	SJ	34	3.68	0.684		
②	NT	53	3.89	0.610	3.086	0.029*
	NT	39	4.00	0.688		
	SP	43	3.95	0.615		
	SJ	34	3.59	0.609		
③	NT	53	3.47	0.696	0.919	0.433
	NT	39	3.67	0.838		
	SP	43	3.47	0.735		
	SJ	34	3.38	0.853		
④	NT	53	3.70	0.607	0.306	0.821
	NT	39	3.64	0.778		
	SP	43	3.60	0.760		
	SJ	34	3.56	0.660		

* $p < .05$, ** $p < .01$, *** $p < .001$

- ① 탐색을 위해 시간이 충분하였는가?
- ② 탐색결과는 학습활동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
- ③ 탐색은 쉬웠는가?
- ④ 전반적으로 탐색결과에 만족하는가?

〈표 22〉 성격유형에 따른 탐색시간 적정성 사후검정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성격 유형	NF ^a	53	3.62	0.713	4.921	0.003**	b<a,c,d
	NT ^b	39	3.44	0.940			
	SP ^c	43	3.70	0.599			
	SJ ^d	34	3.68	0.684			

* $p < .05$, ** $p < .01$, *** $p < .001$

〈표 23〉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활동 유용성 사후검정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성격 유형	NF ^a	53	3.89	0.610	3.086	0.029*	d<a,b,c
	NT ^b	39	4.00	0.688			
	SP ^c	43	3.95	0.615			
	SJ ^d	34	3.59	0.609			

* $p < .05$, ** $p < .01$, *** $p < .001$

사후검정 결과, SJ형과 다른 유형 간의 학습 활동 유용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SJ형은 학습 활동 유용성에 3.59점으로 다른 성격유형보다 탐색결과가 학습활동에 유용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SJ형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교양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할 때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찾게 되면 그 정보에 대한 흥미나 동기부여가 부족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관습적이고 안정성을 중시함으로 기존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주저하는 등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로 인해 SJ형은 정보를 탐색한 후 그 결과가 교양학습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른 성격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4.5 성격유형과 선호정보원에 따른 만족도 차이

주요 변수인 선호정보원과 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먼저 실시하였다. 유의확률 0.05미만의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1~1까지의 값을 가지는 상관계수(r)값을 확인한다. -1또는 1에 가까울수록 높은 두 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호정보원과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24〉 참조), '관련 커뮤니티'와 '시스템 기술적 활용 능력'(r=.180, p<0.05), '필요정보 소재파악의 어려움'(r=.171, p<0.05), '목적에 적

합한 자료탐색의 어려움'(r=.157, p<0.05)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합검색포털'은 '탐색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였는가?'(r=.165, p<0.05)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오프라인 서점'은 '탐색결과는 학습활동에 유용한가?'(r=-.172, p<0.05)와 '전반적으로 탐색결과에 만족하는가?'(r=-.152, p<0.05) 간의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지인'은 '목적에 적합한 자료탐색의 어려움'(r=.172, p<0.05), '탐색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였는가?'(r=.154, p<0.05), '탐색결과는 학습활동에 유용한가?'(r=.160, p<0.05)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성격유형과 선호정보원에 따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가설 3-1] 성격유형과 선호하는 정보원에 따라 정보탐색 과정에 문제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① 선호정보원에 따라 소속도서관 소장자원의 다양성 부족 인지 정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1]은 성격유형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소속도서관 소장자원의 다양성 부족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독립변수 선호정보원을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 소속도서관 소장자원의 다양성 부족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표 25〉 참조). 분석 결과, [모형1] F=1.979, [모형2] F=0.651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표 24〉 선호정보원과 만족도간 상관관계

선호정보원	선호정보원										정보이용만족도								
	종합 검색 포털	온라인 검색 지	직접 도서관 방문	관련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온라인 백과사전	대화형 인공 지능	오픈 라인 서점	보고서 구매 사이트	지인	소속 도서관 소장 자원 다양성 부족	유료 정보 이용 부담	시스템 기술적 활용 능력 부족	필요한 정보 소재 파악의 어려움	목적에 적합한 자료 탐색, 탐색에 신념에 어려움	탐색을 위한 시간의 증분	탐색 결과는 학습 활동에 유용성	탐색은 쉬웠는가	전반적 탐색 결과 만족도
종합 검색 포털	1																		
온라인 검색 지	-0.172*	1																	
직접 도서관 방문	0.334**	0.334**	1																
관련 커뮤니티	0.197*	-0.146	-0.149	1															
소셜미디어	0.121	-0.106	-0.018	0.503**	1														
온라인백과사전	0.249**	-0.169*	0.015	0.312**	0.261**	1													
대화형 인공지능	0.028	-0.142	-0.057	0.168*	0.189*	0.120	1												
오픈라인 서점	-0.026	-0.142	0.082	0.200**	0.283**	0.150	0.028	1											
보고서구매사이트	0.016	0.040	0.046	0.276**	0.179*	0.318**	0.200**	0.200**	1										
지인	0.055	0.012	0.038	0.287**	0.089	0.110	0.226**	0.148	0.379**	1									
소속도서관 소장자원 다양성 부족	0.001	-0.053	-0.044	-0.036	0.085	-0.002	0.085	0.098	0.028	0.028	1								
유료정보이용에 부담	0.162*	0.162*	0.162*	0.162*	0.162*	0.162*	0.162*	0.162*	0.162*	0.162*	0.162*	1							
시스템 기술적 활용능력	0.296**	0.296**	0.296**	0.296**	0.296**	0.296**	0.296**	0.296**	0.296**	0.296**	0.296**	0.296**	1						
필요한 정보 소재 파악의 어려움	0.321**	0.321**	0.321**	0.321**	0.321**	0.321**	0.321**	0.321**	0.321**	0.321**	0.321**	0.321**	0.321**	1					
목적에 적합한 자료 탐색, 탐색에 신념에 어려움	0.262**	0.262**	0.262**	0.262**	0.262**	0.262**	0.262**	0.262**	0.262**	0.262**	0.262**	0.262**	0.262**	0.262**	1				
탐색을 위한 시간의 증분	0.165*	0.165*	0.165*	0.165*	0.165*	0.165*	0.165*	0.165*	0.165*	0.165*	0.165*	0.165*	0.165*	0.165*	0.165*	1			
탐색 결과는 학습 활동에 유용성	0.061	0.061	0.061	0.061	0.061	0.061	0.061	0.061	0.061	0.061	0.061	0.061	0.061	0.061	0.061	0.061	1		
탐색은 쉬웠는가	0.018	0.018	0.018	0.018	0.018	0.018	0.018	0.018	0.018	0.018	0.018	0.018	0.018	0.018	0.018	0.018	0.018	1	
전반적 탐색 결과 만족도	0.092	0.092	0.092	0.092	0.092	0.092	0.092	0.092	0.092	0.092	0.092	0.092	0.092	0.092	0.092	0.092	0.092	0.092	1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25〉 선호정보원에 따른 소속도서관 소장자원의 다양성 부족 인지 회귀분석

변수	모형1				모형2			
	B	SE	β	t(p)	B	SE	β	t(p)
(상수)	2.647	0.146		18.160	2.855	0.637		4.481
NF	0.296	0.187	0.161	1.587	0.306	0.196	0.166	1.560
NT	0.071	0.199	0.035	0.355	-0.014	0.217	-0.007	-0.066
SP	-0.112	0.195	-0.057	-0.575	-0.176	0.207	-0.090	-0.851
$F(p)$	0.119				0.768			
R^2	0.035				0.074			
adj. R^2	0.017				-0.004			

* $p < .05$, ** $p < .01$, *** $p < .001$
 Reference group: 성격유형*sj

② 선호정보원에 따라 유료정보이용 부담 인지 정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1]은 성격유형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유료정보이용 부담 인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독립변수 선호정보원을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 유료정보이용 부담 인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모형1] $F=0.564$, [모형2] $F=0.433$ 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표 26〉 참조).

③ 선호정보원에 따라 시스템 기술적 활용 능력 부족 인지 정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1]은 성격유형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시스템 기술적 활용능력 부족 인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독립변수 선호정보원을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 시스템 기술적 활용능력 부족 인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표 27〉 참조). 분석 결과, [모형1] $F=0.001$, [모형2] $F=0.542$ 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표 26〉 선호정보원에 따른 유료정보이용 부담 인지 회귀분석

변수	모형1				모형2			
	B	SE	β	t(p)	B	SE	β	t(p)
(상수)	3.500	0.183		19.129	2.855	0.637		4.481
NF	-0.085	0.234	-0.037	-0.362	0.306	0.196	0.166	1.560
NT	-0.167	0.250	-0.066	-0.666	-0.014	0.217	-0.007	-0.066
SP	0.151	0.245	0.062	0.617	-0.176	0.207	-0.090	-0.851
$F(p)$	0.564				0.433			
R^2	0.012				0.073			
adj. R^2	-0.006				-0.005			

* $p < .05$, ** $p < .01$, *** $p < .001$
 Reference group: 성격유형*sj

〈표 27〉 선호정보원에 따른 시스템 기술적 활용능력 부족 인지 회귀분석

변수	모형1				모형2			
	B	SE	β	t(p)	B	SE	β	t(p)
(상수)	2.853	0.170		16.758	1.746	0.739		2.364
NF	-0.193	0.218	-0.087	-0.883	-0.081	0.228	-0.037	-0.358
NT	-0.032	0.233	-0.013	-0.139	0.071	0.252	0.029	0.281
SP	0.612	0.228	0.259	2.687	0.716	0.240	0.303	2.980
$F(p)$	0.001**				0.542			
R^2	0.094				0.143			
adj. R^2	0.077				0.071			

* $p < .05$, ** $p < .01$, *** $p < .001$
 Reference group: 성격유형*sj

④ 선호정보원에 따라 필요정보 소재파악 어려움 인지 정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1]은 성격유형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필요정보 소재파악 어려움 인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독립변수 선호정보원을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 필요정보 소재파악 어려움 인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표 28〉 참조). 분석 결과, [모형1] $F = 0.261$, [모형2] $F = 0.288$ 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⑤ 선호정보원에 따라 적합자료 탐색·선별 어려움 인지 정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1]은 성격유형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적합자료 탐색·선별 어려움 인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독립변수 선호정보원을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 적합자료 탐색·선별 어려움 인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표 29〉 참조). 분석 결과, [모형1] $F = 0.016$, [모형2] $F = 0.636$ 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분석결과, 성격유형과 선호정보원에 따라 정보탐색 과정

〈표 28〉 선호정보원에 따라 필요정보 소재 파악 어려움 인지 회귀분석

변수	모형1				모형2			
	B	SE	β	t(p)	B	SE	β	t(p)
(상수)	3.294	0.179		18.411	2.693	0.769		3.503
NF	-0.445	0.229	-0.198	-1.941	-0.322	0.237	-0.143	-1.359
NT	-0.371	0.245	-0.150	-1.516	-0.297	0.262	-0.120	-1.135
SP	-0.271	0.239	-0.113	-1.131	-0.231	0.250	-0.096	-0.923
$F(p)$	0.261				0.288			
R^2	0.024				0.095			
adj. R^2	0.006				0.019			

* $p < .05$, ** $p < .01$, *** $p < .001$
 Reference group: 성격유형*sj

〈표 29〉 선호정보원에 따른 적합자료 탐색·선별 어려움 인지 회귀분석

변수	모형1				모형2			
	B	SE	β	t(p)	B	SE	β	t(p)
(상수)	3.206	0.176		18.165	2.207	0.768		2.873
NF	-0.244	0.226	-0.108	-1.077	-0.122	0.237	-0.054	-0.515
NT	-0.642	0.241	-0.258	-2.658	-0.527	0.262	-0.212	-2.013
SP	0.027	0.236	0.011	0.113	0.147	0.250	0.061	0.590
$F(p)$	0.016*				0.636			
R^2	0.060				0.106			
adj. R^2	0.043				0.031			

* $p<.05$, ** $p<.01$, *** $p<.001$
 Reference group: 성격유형*sj

에서 발생하는 문제 인지도에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 [가설 3-2] 성격유형과 선호하는 정보원에 따라 정보이용만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① 선호정보원에 따라 탐색시간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

[모형1]은 성격유형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탐색시간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독립변수 선호정보원을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 탐색시간 적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표 30〉 참조). 분석 결과, [모형1] $F=0.003$, [모형2] $F=0.297$ 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선호정보원에 따라 학습활동 유용성 인지 정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1]은 성격유형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학습활동 유용성 인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독립변수 선호정보원을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 학습활동 유용성 인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표 31〉 참조). 분석 결과, [모형1] $F=0.029$, [모형2] $F=0.003$ 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의 $R^2=0.053$, [모형2]의 $R^2=0.198$ 로 R 제곱 변화량이 0.169 증가하였다. R제곱 F변화량($F=2.810$)에 따른 유의확률 $p=0.003$ 으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107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직접도서관방문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2.561$, $p<0.05$ 로 직접도서관방문의 선호도는 학습활동 유용성 인지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228$ 로 부호가 정(+)적이므로 직접도서관방문 선호도가 증가하면 학습활동 유용성 인지 정도는 증가하였다.

〈표 30〉 선호정보원이 탐색시간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변수	모형1				모형2			
	B	SE	β	t(p)	B	SE	β	t(p)
(상수)	3.676	0.125		29.347	2.520	0.538		4.680
NF	-0.054	0.161	-0.033	-0.335	0.042	0.166	0.026	0.251
NT	-0.523	0.171	-0.292	-3.049	-0.410	0.184	-0.229	-2.236
SP	0.021	0.168	0.012	0.126	0.095	0.175	0.055	0.544
종합검색포털					0.133	0.084	0.125	1.591
온라인도서관 홈페이지					0.011	0.057	0.016	0.190
직접도서관방문					0.009	0.060	0.013	0.143
관련커뮤니티					-0.059	0.065	-0.086	-0.908
소셜미디어					0.024	0.053	0.043	0.460
온라인백과사전					0.078	0.060	0.112	1.284
대화형인공지능					0.073	0.049	0.121	1.492
오프라인서점					-0.078	0.065	-0.114	-1.208
보고서구매사이트					-0.020	0.055	-0.033	-0.372
지인					0.089	0.064	0.120	1.397
$F(p)$			0.003**				0.297	
R^2			0.082				0.148	
adj. R^2			0.065				0.076	

* $p < .05$, ** $p < .01$, *** $p < .001$

Reference group: 성격유형*sj

〈표 31〉 선호정보원에 따른 학습활동 유용성 인지 정도 회귀분석

변수	모형1				모형2			
	B	SE	β	t(p)	B	SE	β	t(p)
(상수)	3.588	0.108		33.217	2.487	0.443		5.609***
NF	0.299	0.138	0.217	2.157	0.390	0.137	0.283	2.856**
NT	0.412	0.148	0.271	2.786	0.593	0.151	0.390	3.922***
SP	0.365	0.145	0.249	2.527	0.472	0.144	0.322	3.274**
종합검색포털					0.047	0.069	0.052	0.688
온라인 도서관 홈페이지					0.033	0.047	0.057	0.705
직접 도서관 방문					0.128	0.050	0.228	2.561*
관련 커뮤니티					-0.006	0.054	-0.010	-0.114
소셜미디어					0.063	0.043	0.132	1.465
온라인백과사전					0.052	0.050	0.088	1.038
대화형 인공지능					0.019	0.040	0.037	0.464
오프라인 서점					-0.209	0.053	-0.360	-3.923***
보고서구매사이트					-0.056	0.045	-0.108	-1.245
지인					0.171	0.053	0.271	3.245**
$F(p)$			0.029*				0.003**	
R^2			0.053				0.198	
adj. R^2			0.036				0.131	

* $p < .05$, ** $p < .01$, *** $p < .001$

Reference group: 성격유형*sj

오프라인서점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 = -3.923$, $p = 0.000$ 으로 오프라인서점의 선호도는 학습활동 유용성 인지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0.360$ 으로 부호가 부(-)적이므로 오프라인서점의 선호도가 증가하면 학습활동 유용성 인지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의 회귀계수 검정결과, $t = 3.245$, $p < 0.01$ 로 지인의 선호도는 학습활동 유용성 인지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0.271$ 로 부호가 정(+)적이므로 지인의 선호도가 증가하면 학습활동 유용성 인지 정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선호정보원에 따라 탐색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

[모형1]은 성격유형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탐색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독립변수 선호정보원을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 탐색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표 32〉 참조). 분석 결과, [모형1] $F = 0.433$, [모형2] $F = 0.414$ 로 회귀모형

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선호정보원에 따라 탐색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1]은 성격유형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탐색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독립변수 선호정보원을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 탐색결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표 33〉 참조). 분석 결과, [모형1] $F = 0.821$, [모형2] $F = 0.013$ 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의 $R^2 = 0.006$, [모형2]의 $R^2 = 0.137$ 로 R 제곱 변화량이 0.131 증가하였다. R제곱 F변화량($F = 2.357$)에 따른 유의확률 $p = 0.013$ 으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002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2〉 선호정보원에 따른 탐색 용이성 회귀분석

변수	모형1				모형2			
	B	SE	β	t(p)	B	SE	β	t(p)
(상수)	3.382	0.133		25.513	2.955	0.573		5.161
NF	0.089	0.170	0.054	0.526	0.134	0.176	0.081	0.760
NT	0.284	0.181	0.156	1.568	0.324	0.195	0.177	1.661
SP	0.083	0.177	0.047	0.467	0.098	0.186	0.055	0.525
$F(p)$	0.433				0.414			
R^2	0.016				0.078			
adj. R^2	-0.001				0.001			

* $p < .05$, ** $p < .01$, *** $p < .001$
Reference group: 성격유형*sj

〈표 33〉 선호정보원에 따른 탐색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변수	모형1				모형2			
	B	SE	β	t(p)	B	SE	β	t(p)
(상수)	3.559	0.120		29.653	2.574	0.499		5.160***
NF	0.139	0.154	0.093	0.906	0.199	0.154	0.133	1.293
NT	0.082	0.164	0.050	0.501	0.186	0.170	0.113	1.094
SP	0.046	0.161	0.029	0.285	0.120	0.162	0.075	0.737
종합검색포털					0.095	0.078	0.097	1.226
온라인도서관 홈페이지					0.074	0.053	0.118	1.392
직접도서관방문					0.081	0.056	0.134	1.449
관련커뮤니티					-0.131	0.060	-0.206	-2.163**
소셜미디어					0.127	0.049	0.245	2.618*
온라인백과사전					0.056	0.056	0.088	1.001
대화형 인공지능					0.058	0.045	0.105	1.284
오프라인서점					-0.209	0.060	-0.332	-3.490**
보고서구매사이트					0.040	0.051	0.071	0.787
지인					0.042	0.059	0.061	0.701
$F(p)$	0.821				0.013			
R^2	0.006				0.137			
adj. R^2	-0.013				0.064			

* $p<.05$, ** $p<.01$, *** $p<.001$
Reference group: 성격유형*sj

관련 커뮤니티 선호도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 = -2.163$, $p < 0.05$ 로 관련 커뮤니티 선호도는 탐색결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206$ 으로 부호가 부(-)적이므로 관련 커뮤니티 선호도가 높아지면 탐색결과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선호도의 회귀계수 검정결과, $t = 2.618$, $p < 0.05$ 로 소셜미디어 선호도는 탐색결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beta = 0.245$ 로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소셜미디어 선호도가 높아지면 탐색결과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서점 선호도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는 $t = -3.490$, $p < 0.01$ 로 나타나 오프라인 서점 선호도는 탐색결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 $\beta = -0.332$ 로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오프라인 서점 선호도가 높아지면 탐색결과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성격유형과 선호정보원에 따라 정보이용만족도에 통계적인 차이가 부분적으로 나타나 [가설 3-2]는 부분채택 되었다.

4.6 교양학습 지원을 위한 대학도서관 서비스 인식조사

[연구문제 2]에서 C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교양학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양학습을 위한 정보탐색지원 서비스(이용자의 정보요구와 효율적인 주제별 학술정보검색

법 등)가 제공되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 88명(52.1)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이용경험에서 이용해본 적이 있다 67명(39.6), 이용해본 적이 없다 102명(60.4)으로 다수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나타났다.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응답자(67명)에 한하여 대학도서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조사 결과(복수 응답 가능), 전자저널 논문 서비스(28.1), 시설이용서비스(21.3), 예약도서 무인대출(20.0), 희망자료 신청(14.4)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활용교육(8.8), 타기관이용서비스와 무인예약대출서비스(3.8)는 비교적 이용이 낮았다.

개방형 질문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대학도서관을 통해 여러 논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게 좋았다”, “학술지 구독수를 늘렸으면 좋겠다”와 같이 적극적인 사용 의사를 나타냈다. 여기에서 ‘논문 관련 서비스는 대학원생이 주로 이용하며, 대학생은 기본적인 도서관 이용서비스만 이용한다’(정미정, 2014)와는 달리 대학생도 논문 관련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인예약대출서비스에서 “무인예약대출이 다른 요일도 가능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 운영시간 내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료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 학기 중에는 일주일 중 금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일 이내에 신청 자료를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무인예약대출의 이용 빈도수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경험과 상관없이 교양학습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서비스에

대해(복수응답 가능) 분석 결과, 전자저널 논문 서비스(19.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희망자료신청(18.1), 시설이용서비스(17.2), 예약도서 무인대출(13), 무인예약대출서비스(10.9), 타기관이용서비스, 정보활용교육(10.7)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서비스에 대한 결과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교양학습을 위한 타기관이용서비스가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자신이 소속된 대학도서관이 교양학습을 위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고 인식되어 외부 서비스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거나 또는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인예약대출서비스의 빈도가 낮은 이유로 대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평일에 대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무인예약대출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시스템의 사용법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자료를 대출하거나 반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추가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용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10.9%(47명)의 적은 응답 요인으로는 다수의 학생들이 정보활용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들 수 있다. 정보활용교육이 리포트 작성을 위한 주제별 학술정보검색법 등 교양학습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종합검색포털의 선호도가 높음에 따라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유튜브나 구글 등을 통해 정보를 찾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4.7 가설 채택

입증된 가설은 <표 34>와 같이 요약 및 정리하였다.

5.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대학교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표본의 성격유형이다. 독립변인인 MBTI 기질적 성격유형은 NF형 53명(31.4%), SP형 43명(25.4%), NT형 39명(23.1%), SJ형 34명(20.1%)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격유형에 따른 정보이용행태 분석 결과이다. 1) 정보탐색 목적에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격유형에 관계없이 '과제 해결을 위해' 정보를 가장 많이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2) 선호정보원은 유일하게 온라인백과사전 항목에서 SJ형과 NF형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질서와 일률적인 것을 선호하는 SJ형과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높은 NF형의 성격기질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보인 것으로 본다. 3) 정보원 고려요소에서는 정보입수에 걸리는 시간을 가장 고려하는 성격기질은 NF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정보처리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정보수집패턴 분석 결과, SJ형이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지인에게 알리는 편'의 수집 패턴에 유의한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속 욕구가 강하며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성격기질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성격유형에 따른 만족도 분석 결과이다. '시스템 활용 능력', '자료 선별 능력', '학습 활동 유용성 인지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는 SP형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복잡한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표 34> [연구문제 1]의 가설의 채택

구분	내용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	성격유형이 교양학습을 위한 정보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탐색목적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기각
	1-2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정보원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부분채택
	1-3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원 고려요소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채택
	1-4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수집패턴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채택
가설 2	성격유형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1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2-2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이용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3	선호하는 정보원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1 선호하는 정보원에 따라 정보탐색 과정에 문제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3-2 선호하는 정보원에 따라 정보이용만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2) 자료 선별 능력에서 NT형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능력의 기질적 도움으로 타 성격유형에 비해 자료 선별능력에 어려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3) 정보이용만족도에서는 NT형이 완벽주의적 기질에 의해 탐색시간이 부족하였으며, SJ형은 정보탐색결과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로 다른 성격유형에 비해 비교적 학습활동에 유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만족도를 변별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량화하고, 이를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지원서비스 틀에 적용한다.

넷째, 성격유형과 정보이용행태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학습활동 유용성과 탐색결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접도서관을 방문하는 것'과 '지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정보탐색의 결과가 자신의 학습활동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서는 여러 자료를 한곳에서 직접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지인은 개인적 관심사나 수준에 맞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오프라인서점에 대한 선호도는 학습활동 유용성과 반비례한 결과를 보였는데, 단행본의 특성상 최신 연구결과에 대한 반응이 늦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서점에 대한 선호도는 탐색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반비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으로 다양한 주제자료가 혼재되어 학문적인 심도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소셜미디어 선호도는 탐색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비례해 교양학습에 있어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제공해줌으로써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성격유형과 정보이용행태에 따라 교양학습지원을 위한 학습자원 지원 지침(안내)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 C대학교 대학생들은 교양학습을 위한 정보추구행위에서 성격유형별 정보이용행태와 만족도에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C대학교 도서관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성격유형을 고려한 정보활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조사 결과, 정보활용교육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은 14명(8.8%)에 불과하였다.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교양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성격유형별 정보이용행태를 적용시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탐색 시간이 부족한 NT형은 효율적인 정보 탐색을 위해 검색 전략과 온라인 검색 도구의 활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이용자는 검색어 선택, 필터링, 검색 결과 신뢰성 평가 등을 학습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용자가 교양학습 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뉴 정보서비스를 개발한다. 연구 결과, 대학생 역시 논문과 같은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논문과 같은 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논문 추천 서비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학교 포털사이트와 도서관 홈페이지를 연동하여 현재 수강 중인 과목과 관련된 자료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성격유형에 따라 관심사가 다른 학생들을 고려하여 수업 참여도와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탐색함으로써 학습의 범주를 넓힐 수 있다. 이것은 융복합적 사고와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셋째, C대학교 대학생 교양학습을 위한 정보 공유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연구 결과, '지인'이나 '직접 도서관 방문'으로 얻은 정보는 유용하였으나,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는 만족도가 낮았다. 이에 도서관은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지인의 학습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자원과 인적교류의 장(場)을 제공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연구는 정보시스템 이용자의 특성 변인을

인구통계학적 요소로만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정보이용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격유형'을 설정 후 두 변인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보서비스 방향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표본이 C대학교에 한정(전체 대학생 집단의 대표성 한계), 연구 대상의 다양성을 반영 미흡, 교양학습만을 위한 정보탐색지원, 정보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성격유형에 따른 차이만을 설명하였다.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MBTI를 활용한 성격유형별 정보이용행태 조사와 정보탐색지원서비스를 교양학습, 연구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살펴본다면 다양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문식, 정영정 (2008). 대학정보시스템 품질특성이 학생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13(5), 197-213.
- 강민정 (2014). MBTI 성격유형,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강보람 (2019). MBTI 성격유형과 포커싱적 태도의 관계: 대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 강창동 (2012).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8(2), 83-107.
- 곽우정, 노영희, 안인자, 장징징 (2019). 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대학도서관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4), 91-114. <http://doi.org/10.14699/kbiblia.2019.30.4.091>
- 국가도서관위원회 (2023).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권용근 (2011). 칼 융(C. G. Jung)의 정신유형론에서 본 영성유형 분석. 기독교교육 논총, 0(26), 57-91. <http://doi.org/10.17968/jcek.2011..26.002>

- 김성진 (2020).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 대학생의 전자자료 이용행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4), 53-82. <http://doi.org/10.4275/KSLIS.2020.54.4.053>
- 김승한 (2023, 12. 8.). 네이버, 카카오·SKT와 '디지털 정보 접근 증진' AI 기술 공유. 머니투데이 2023년 12월 8일.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0809204565382>
- 김아현, 이승민 (2023). 주제가이드 개선을 위한 대학생의 학술정보탐색행태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0(3), 55-76. <http://doi.org/10.3743/KOSIM.2023.40.3.055>
- 김유중 (2017). 교육전문대학원생의 정보이용행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재은 (2000). 웹 교육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검색자의 성격 유형에 따른 정보 검색 양식 및 결과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정택 (2015).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성. 서울: 한국엠비티아이연구소.
- 김정택, 심혜숙, 재석봉 (1995).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종련, 배천웅 (2007). 고등학생의 성격유형과 선호하는 학습전략의 관계. 교육연구, 14(2), 123-148.
- 김종철 (2006). 한국 고등학생/국내 고등학생의 프랑스어 학습전략: MBTI성격유형과 Keirsey의 4기질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23, 53-80.
- 김진영 (2012). 대학생의 포털사이트 학술정보서비스 이용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한곤 (1993). 대학과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 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새마을지역개발연구, 14, 235-236.
- 김현희, 장유리 (2014).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이 인문사회과학 대학생들의 정보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237-264. <http://doi.org/10.4275/KSLIS.2014.48.3.237>
- 김혜영, 김기영, 민윤경, 이지연 (2021). 대학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이용자 정보요구 및 정보행위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지, 38(2), 305-336. <http://doi.org/10.3743/KOSIM.2021.38.2.305>
- 김희섭 (2004). Web OPAC 이용패턴과 MBTI 성격유형의 상관관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229-250.
-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박해인 (2023). 과학영재학교 학생의 정보이용행태분석을 통한 학교도서관 서비스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배경재 (2010).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 서비스 대학 이용자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 차이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157-176. <http://doi.org/10.4275/KSLIS.2010.44.2.157>
- 서갑주 (2016). MBTI 성격유형과 U&I 학습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탐색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성면섭 (2020). 기록관리기관 이용 학술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손동현 (2006). 대학의 학사구조개편과 교양기초교육의 위상. 2006학년도 춘계 대학교양교육협의회

- 심포지엄 자료집, 3-17.
- 손현정 (2015). 간호대학생의 MBTI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탄력성. 석사학위논문, 가톨릭관동대학교.
- 이란주, 김수진 (2015). 주제별 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129-153. <http://doi.org/10.14699/kbiblia.2015.26.2.129>
- 이범주 (2003). 공학계열 대학생의 정보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성흠, 윤옥한 (2013). 강좌별 수업행태 및 융복합 교육을 위한 수업지원방책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61-386.
- 이은주 (2013). 학습활동을 위한 대학생의 정보행태와 도서관목록의 의미.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이은주, 이제환 (2011). 대학생의 학습활동에 있어 도서관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105-126. <http://doi.org/10.16981/kliss.43.3.201209.49>
- 이제환 (2009).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의 관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161-182. <http://doi.org/10.16981/kliss.40.2.200906.161>
- 이현민 (2016). 4 ONs 기반 융복합교육 모형 개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 411-430. <http://doi.org/10.22251/jlcci.2016.16.12.411>
- 임진희 (2010). 설명책임 메커니즘을 통한 공공기관 업무정보의 추구 및 제공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장현정, 김명애 (2014).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별 기질과 학습유형 및 학습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400-410. <http://doi.org/10.5392/JKCA.2014.14.09.400>
- 정동열, 김성진 (2010). 문헌정보학 이론과 법칙.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정영미 (2012).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따른 OPAC 탐색 성향과 만족도. 정보관리학회지, 29(3), 169-186. <http://doi.org/10.3743/KOSIM.2012.29.3.169>
- 정중원, 유기웅 (2015). 교양기초교육 영역분류에 따른 국내 대학의 현황과 영향요인 분석. 한국 교육학 연구, 21(3), 5-27.
- 조가흠 (2017). 학술정보 포털 사이트 이용동기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최윤희 (2017). 대학 교양수업에서 학습양식 유형, 수업방식별 만족도,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교양교육 연구, 11(4), 307-308.
- 한국MBTI심리연구소 [발행년불명]. MBTI 성격유형. 출처: <https://kmbti.co.kr/character/index.html> [검색일 2024.03.25.]
- 한국MBTI연구소 [발행년불명]. MBTI의 이해. 출처: <https://www.mbti.co.kr> [검색일 2024.03.02.]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2).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 출처: https://www.konige.kr/data/general_edu.php [검색일 2023.03.05.]

-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 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01937>
- 홍성연 (2023). 교양교육의 미래 영향 요인 분석: A 대학 교양전담기관 교수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교양기초교육연구*, 4(2), 37-75. <http://doi.org/10.37998/LE.2023.4.2.2>
- 홍정연 (2019). 신입경찰의 MBTI 성격유형, 교육만족,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가천대학교.
- 황광현 (2004). MBTI 성격유형과 영성생활 유형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천주교와 기독교 신자 경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Bates, M. J. (2010).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Chapter 3. Information Behavior, 2381-2391.
- Elihu, K. (1959). *Mass Communication Research and the Study of Culture*. *Studies in Public Communication*, 2, 1-6.
- Elliot, K. & Shin, D. (2010). Student Satisfaction: An Alternative Approach to Assessing This Important Concept. *Journal of Higher Education Policy and Management*, 24(2), 197-209. <https://doi.org/10.1080/1360080022000013518>
- Halder, S., Roy, A., & Chakraborty, P. K. (2010).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on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students. *Malaysian Journa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15, 41-53.
- Heinström, J. (2005). Fast surfing, broad scanning and deep diving: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and study approach on students' information-seeking behavior. *Journal of Documentation*, 61(2), 228-247. <https://doi.org/10.1108/00220410510585205>
- Jung, C. G. (1979). *Word and 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rchionini, G. (1995). *Information Seeking in Electronic Environm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isley, W. J. (1968). Information Needs and Use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3, 1-30.
- Pamela, L. & Loren, T. (2003). Does an Individual's Myers-Briggs Type Indicator Preference Influence Task-Oriented Technology Use? IFIP TC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623-630.
- Richard, L. O.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4), 460-469. <https://doi.org/10.1177/002224378001700405>
- Seddon, P. B. (1997). A Respecification and Extension of the DeLone and McLean Model of

IS Success. *Informs*, 8(3), 240-253. <https://doi.org/10.1287/isre.8.3.240>

Song, H. & Kwon, N.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Information competency in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0(7), 1153-1162. <https://doi.org/10.2224/sbp.2012.40.7.1153>

Wilson, T. D. (1999). Models in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Journal of Documentation*, 55(3), 249-270. <https://doi.org/10.1108/EUM000000007145>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Bae, Kyungjae (2010).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information needs and usages among academic user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157-176.

<http://doi.org/10.4275/KSLIS.2010.44.2.157>

Choi, Yoonhee (2017).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s students' learning style, lectur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the liberal art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4), 307-308.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23). The 4th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Ministry of Cultural, Sports and Tourism.

Hong, Jeongyeon (2019). The Effect of New Police Officers' MBTI Personality type, Education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Doctoral d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Hong, Seongyoun (2023). Analyzing critical influencing factors on the future of general education: Perspectives from faculty members in general education institution of a university. *Journal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 4(2), 37-75.

<http://doi.org/10.37998/LE.2023.4.2.2>

Hwang, Gwanghyun (2004). The Relationship of MBTI Characteristic Types and Spirituality Types: With Catholic and Christian Police Officers as Subject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Jang, Hyunjung & Kim, Myungae (2014). Temperament by MBTI personality types, learning styles and learning strategie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9), 400-410. <http://doi.org/10.5392/JKCA.2014.14.09.400>

Jeong, Dongyeol & Kim, Seongjin (2010). Theory and Law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Jeong, Yeongmi (2012). Influences of Enneagram personality types on OPAC searching and satisfaction.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3), 169-186.
<http://doi.org/10.3743/KOSIM.2012.29.3.169>
- Jung, Jongwon & Ryu, Kiung (2015).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the relevant factors of liberal & general education in Korea higher education.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1(3), 5-27.
- Kang, Boram (2019). Relationship between MBTI Personality Types and Focusing Manners: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 Kang, Changdong (2012). An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and character for cultured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8(2), 83-107.
- Kang, Minjeoung (2014). An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MBTI Personality Types, Job Satisfaction, Customer Orientation and Turnover Intention.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 Kang, Moonsig & Jung, Youngjung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quality factors of university information systems on students' satisfaction level.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13(5), 197-213.
- Kim, Ahyeon & Lee, Seungmin (2023). A study on the academic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o improve subject guide: Focusing on C university.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0(3), 55-76. <http://doi.org/10.3743/KOSIM.2023.40.3.055>
- Kim, Hangan (1993). The role and function of universities and communities: Focusing on social and cultural aspects. *Journal of Yeungnam Regional Development*, 14, 235-236.
- Kim, Heesop (2004). Correlation between Web OPAC use patterns and MBTI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4), 229-250.
- Kim, Hyeyoung, Kim, Giyeong, Min, Yoonkyung, & Lee, Jeeyeon (2021). A study on information needs and behavior for the development of academic library services.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2), 305-336. <http://doi.org/10.3743/KOSIM.2021.38.2.305>
- Kim, Hyunhee & Jang, Yoori (2014). The influence of enneagram personality styles o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tudi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Library & Information*, 48(3), 237-264.
<http://doi.org/10.4275/KSLIS.2014.48.3.237>
- Kim, Jaeun (2000). Searching Styles and Search Outcomes Difference among Searchers of Distinct Personality Types on Web-Based Educational Information Retrieval. Ma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 Kim, Jeongtaek (2015). *Characteristics of the 16 Personality Types*. Seoul: Korea MBTI Research Institute.
- Kim, Jeongtaek, Shim, Hyesook, & Jae, Seokbong (1995). *MBTI Development and Utilization*. Seoul: Korean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 Kim, Jinyoung (2012). *A Study on the Realities for University Students to Make Use of Portal Sites' Academic Informat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Kim, Jongcheol (2006). *Types de personnalite de lyceens et leurs preferences des strategies d'apprentissage: une application de la grille de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eclairee par celle de Keirse*. *Societe Coreenne d'Enseignement de Langue et Litterature Francaises*, 23, 53-80.
- Kim, Jongryeon & Bae, Cheonwoong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their preferences of learning strategies: focused on their MBTI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4(2), 123-148.
- Kim, Seunghan (2023, December 8). Naver, Kakao, SKT Share AI Technology to 'Promote Digital Information Access'. *Money Today* December 8, 2023. Available: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0809204565382>
- Kim, Sungjin (2020). *Analysis of usage behaviors for the electronic resources of undergraduates in a smart mobile environment: Focused on the usage statistics of the A-academ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4), 53-82. <http://doi.org/10.4275/KSLIS.2020.54.4.053>
- Kim, Youjung (2017). *A Study on Information Use Behavior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Korean Basic Education Institute (2022). *Standard Model for Liberal Arts Education at University*. Available: https://www.konige.kr/data/general_edu.php [Retrieved March 5, 2023.]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0). *Study on the Learning Process of Korean College Students 1*.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01937>
- Korean MBTI Psychology Research Institute [n.d.]. *MBTI personality type*. Available: <https://kmbti.co.kr/character/index.html> [Retrieved March 25, 2024.]
- Korean MBTI Research Institute [n.d.]. *Understanding MBTI*. Available: <https://www.mbti.co.kr> [Retrieved March 2, 2024.]
- Kwak, Woojung, Noh, Younghee, Ahn, Inja, & Zhang, Jingjing (2019). *A study on the customized services of university libraries according to MBTI personality types of college students*.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4), 91-114.
<http://doi.org/10.14699/kbiblia.2019.30.4.091>
- Kwon, Yongkeun (2011). An analysis of spiritual types in the light of C. G. Jung's theory of psychological typ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0(26), 57-91.
<http://doi.org/10.17968/jcek.2011..26.002>
- Lee, Beomju (2003). A Study on the Patterns of Information Use of Engineering Students in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Lee, Eunju & Lee, Jaewhoan (2011). Meanings of library catalog in learning activiti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105-126.
<http://doi.org/10.16981/kliss.43.3.201209.49>
- Lee, Eunju (2013). Inform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and Meaning of Library Catalog.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Hynmin (2016). A study of development 4 ONs based interdisciplinary education model: Focused on arts classes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 411-430. <http://doi.org/10.22251/jlcci.2016.16.12.411>
- Lee, Jaewhoan (2009). Personal traits and information behavior: The case of college freshme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161-182.
<http://doi.org/10.16981/kliss.40.2.200906.161>
- Lee, Lanju & Kim, Sujin (2015). A study on the literature review of information use behavior in specialized field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2), 129-153. <http://doi.org/10.14699/kbiblia.2015.26.2.129>
- Lee, Seongheum & Yoon, Okhan (2013). Research on teaching behavior and teaching support measures for convergent education by course. *Korean Society for Liberal Arts Education Conference Proceedings*, 361-386.
-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2010). *Diction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erms*. Revis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Park, Haein (2023). A Study on School Library Services Based on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Students in the Science School for Gift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Seong, Myeon-seob (2020). A Study on the Information Use Behavior of Academic Researchers Using Archival Institution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Son, Donghyun (2006). Restructuring of the university's academic structure and the status of liberal arts education. 2006 Spring Symposium on University Education Council, 3-17.
- Son, Hyunjeong (2015). Ways of Coping and Academic Resilience According to MBTI Personality

- Type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 Suh, Gabju (2016). An Exploratory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MBTI Personality Preference and U&I Learning Type.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 Yim, Jinhee (2010). A Study on the Process of Public Information Seeking and Providing through Accountability Mechanism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Zhao, Kexin (2017). A Study on the Use Motivation and Satisfaction among Academic Internet Portal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